청년 지역정착 위한 일자리 매칭의 장 마련

전북중소벤처기업청-전북자치도교육청, 9일 우석대 체육관서 '2025년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2025년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오는 9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공동개최한다.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직업계고 출신 기술인재의 지역안착을 돕고자 전북중기청과 전북교육청이 뜻을 모아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타지역 유출이 늘어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자 청년 구직자까지 확대시켜 우수 제조업부터 바이오, 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중소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20개 일자리 유관기관이 성공적인 인력매칭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민연금공단,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익산캠퍼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지방병무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전북산학융합원(고창군로컬잡센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에서는 '25년 8월부터 학생 구직자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실전면접교육'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강화한 후 참여기업과 사전매칭을 진행하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청년구직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기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고, 정책알림에 동의한 도내 청년에게는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63개사가 오전·오후로 나뉘어 총 34개 부스에서 현장면접을 진행하고, 지문적성검사 등 구직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8개 기관에서 취업컨설팅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채용상담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과 기관에 취업한 선배직무자가 취업노하우 공유와 구직자의 애로상담을 진행하며 노무상담과 다양한 정책을 안내해 주는 정책홍보관 외에도 메타버스 등 다채로운 기타 부대행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전북은 매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청년 실업률 또한 높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적극 동참

전은, 금융위원회 · 전북도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앞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지난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 참여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북에서 열린 첫 지방 간담회 자리. 행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와 함께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을 비롯한 지역 금융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종일 은행장은 "올해 상반기 전북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총 1,582억원의 자금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공급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공급 및 채무조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적극 취급하면서 지난해 2,682건에 687억원을 신규지원하며 취급 실적 1위를 달성했고, 올해도 6월말 기준 지원규모가 3,037건, 781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 날 행사 직후 전북은행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지원 후원금 기탁식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갔다.

백종일 은행장은 "전북은행은 단순한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

도내 소상공인의 성공 창업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에서는 오는 12일까지 신규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6실(14㎡ 4실, 21㎡ 1실, 27㎡ 1실) 예정이며, 서류 및 대면평가(인터뷰형식)를 통해 선정된 업체(예비창업자)는 업무 및 회의 공간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업체는 1년 계약 후 매해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단, 도박·투기 등 사행성 조장업종 및 불건전업종, 금융·보험·주점·숙박·유흥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외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희망센터는 소상공인 창업·보육 전문기관으로, △사무공간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창업 파트너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a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 (063-717-1319, 1306)에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내년 예산 16.8조원… 벤처 · AI · 소상공인 지원 대폭 강화

중기부, 창업 · 벤처 4대 강국 도약 · 디지털 · AI 대전환 등 5대 분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15조 2,488억원)보다 1조5,961억원(10.5%) 늘어난 규모다. 중기부는 융자사업과 경상비 등에서 1조9,000억원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창업·벤처·AI 전환 등 '진짜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 △디지털·AI 대전환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역 기업생태계 강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맞춰 짜였다.

창업·벤처 분야에는 4조3,886억원이 투입된다. 모태펀드 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원으로 늘리고, AI·딥테크 투자에 절반을 배정한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는 '재도전 펀드'와 M&A·세컨더리 투자도 확대한다.

또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해 5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1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AI·바이오 등 10대 신산업 스타트업을 키우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디지털·AI 전환 분야에는 3조7,464억원이 배정됐다.

R&D 예산이 2조1,955억원으로 45%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스마트공장 지원은 4,366억원으로 대폭 증액돼, 제조기업의 AI팩토리 구축과 디지털 트윈 도입을 촉진한다.

K-뷰티와 K-컬처의 해외 진출을 위한 'K-뷰티 클러스터' 사업(30억원), 수출 바우처(1,502억원), 수출컨소시엄(178억원) 등도 확대된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5,278억원으로 편성됐다.

230만명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경영안정바우처(5,790억원)가 핵심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에서 명칭을 바꿔 내년에도 계속된다.

혁신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K-소상공인 육성 사업(1,281억원), AI 활용 지원 사업(114억원)도 새로 들어갔다. 지역 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 예산은 378억원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5조원으로 확대되며, 디지털 비중이 더 커진다. 소상공인 폐업·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는 3,056억원으로 늘었고, AI 상담서비스인 '소상공인 AI 도우미'가 처음 도입된다.

지역 기업생태계에는 1조3,175억원이 투입된다. /오상근 기자

건설산업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건협 전북-노동부 전주지청, 안전관리 강화 · 체계 구축 협력 논의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재철 회장은 "전체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이하 사업장 및 50억 이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조속히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애로사항을 수시로 살피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보편적인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의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분야의 제도와 현장 점검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미조치 사항을 협회와 공유하여, 지역건설현장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산업 전반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공영철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산재예방과 감소를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통해 지역 건설사의 안전관리 역량과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건설문화가 현장 곳곳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2025 하반기 연체감축 · 건전결산 추진 전략회의' 개최

전북농협은 지난 1일 전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연체감축&건전결산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관내 92개 농·축협 기획상무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슬로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끌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의 농정현안 특강과 '농심천심'(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운동 동참 결의를 함께 다졌다.

아울러 2025년 농축협 상반기 연체현황 및 시점결산 현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공동대출 연체관리 등 중점관리 추진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과 현장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북농협은 올 연체감축을 통한 건전결산 달성을 위해 매주 연체감축의 날을 정하고 현장 지도·지원 등 전사적인 연체채권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농축협 경영환경이 대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북농협 임직원들이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효과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2025년 건전결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